

# CNB 저널

+art in

등록인 2006년 11월 24일 등록번호: 서울대107522 (주)CNB미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52-20 CNB미디어 빌딩

2015년 9월28일~10월11일 제450·451합본호 4,000원

## [사회적경제] “배부른 예술? 됩니다”

[카 디자인] “마세라티는 배기음까지 예술”

[중국 사업] “무조건 중국어부터”

[골프] 비거리 늘려주는 편심성운동

art in

[커버] 박제경 ‘살 녹은 레이스의 관능성’

“내 나이 80. 변신하기 딱 좋아”

부수인종매체  
한국ABC협회

ISSN 1975-7492

9 771975 749003

40



하종현 화백 사진=왕진오 기자

# “내 나이 80 변신하기 딱 좋아”

왕진오 기자 wangpd@cnnnews.com

3, 40년 간 자신만의 화업을 일구며 고독한 길을 걸어온 원로-중진 화가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미술관 초대 전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제3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캔버스 대신 마대를 사용해 마대 뒤에서 물감을 밀어내는 독특한 기법을 통해 단색화의 대가로 불리는 하종현 화백, “이런 것도 현대미술이 될 수 있다”는 일관된 개념으로 장르 파괴를 진행한 설치미술가 이승택, 극장 영화간판 그림과 주문 초상화를 그리다가 극사실 인물화로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이상원 화백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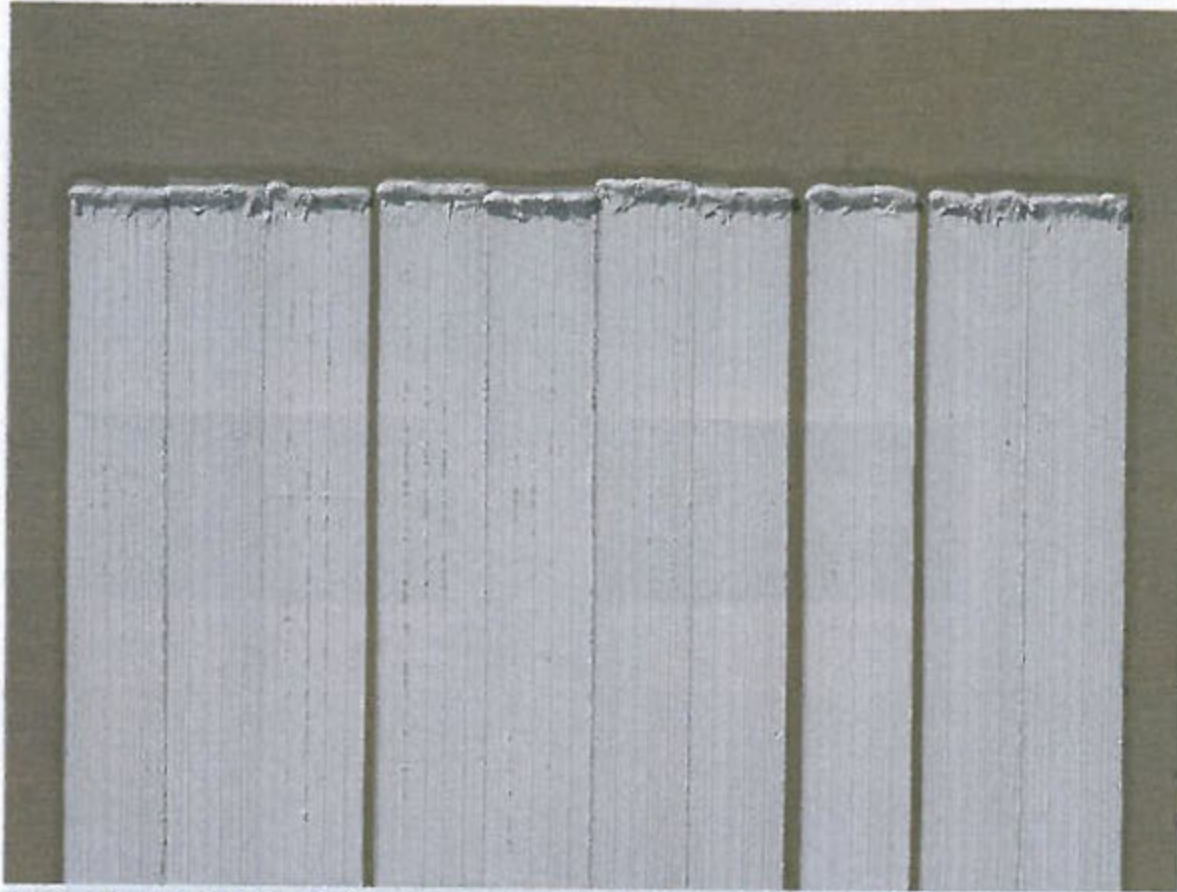
## ‘마대, 물감, 나 합일 40년’ 하종현 화백

“마대, 물감, 내가 합일을 이루기 위해 40년 동안 붓을 놓지 않았지요, 지금은 죽어도 원이 없지요 하도 수행하듯 작업을 해서 사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라며 크게 웃는다. 단색화 인기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하종현(80) 화백. 그가 ‘접합’ 연작에 이어 연기로 그을린 신작을 선보이는 자리를 삼청로 국제갤러리 1관과 2관에서 9월 17일~10월 18일 마련했다.

하종현 화백은 70년대부터 마대로 만든 캔버스에 미술계의 상식을 뒤집었다. 그는 단색화 태동기부터 화면의 앞뒤를 구분하는 관행에 비판적이었다.

그가 이번 전시에는 기법이자 색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연기(smoke)’를 선택했다. 물감에 연기를 실어 캔버스에 씌우면 표면에 연기가 자연스럽게 부착된다.

하 화백은 물감이 캔버스에 어떤 방식으로 발리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2년 전부터 70년대부터 실험했던 연기 이용 작품을 완성하게 됐다. 뒤에서 밀어내 결을 파괴하며 진행했던 붓질로 완성된 표면에, 연기가 덮이게 되는 순간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 입자들이 새로운 레이어를 쌓게 된다.



Conjunction 15-106: 하종현, 'Conjunction 15-106'. 마대에 오일, 194 x 259cm, 2015. 이미지=국립현대미술관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어는 바람에 의한 건조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되는 신기원을 이뤘다. 마대 이용도 서양 것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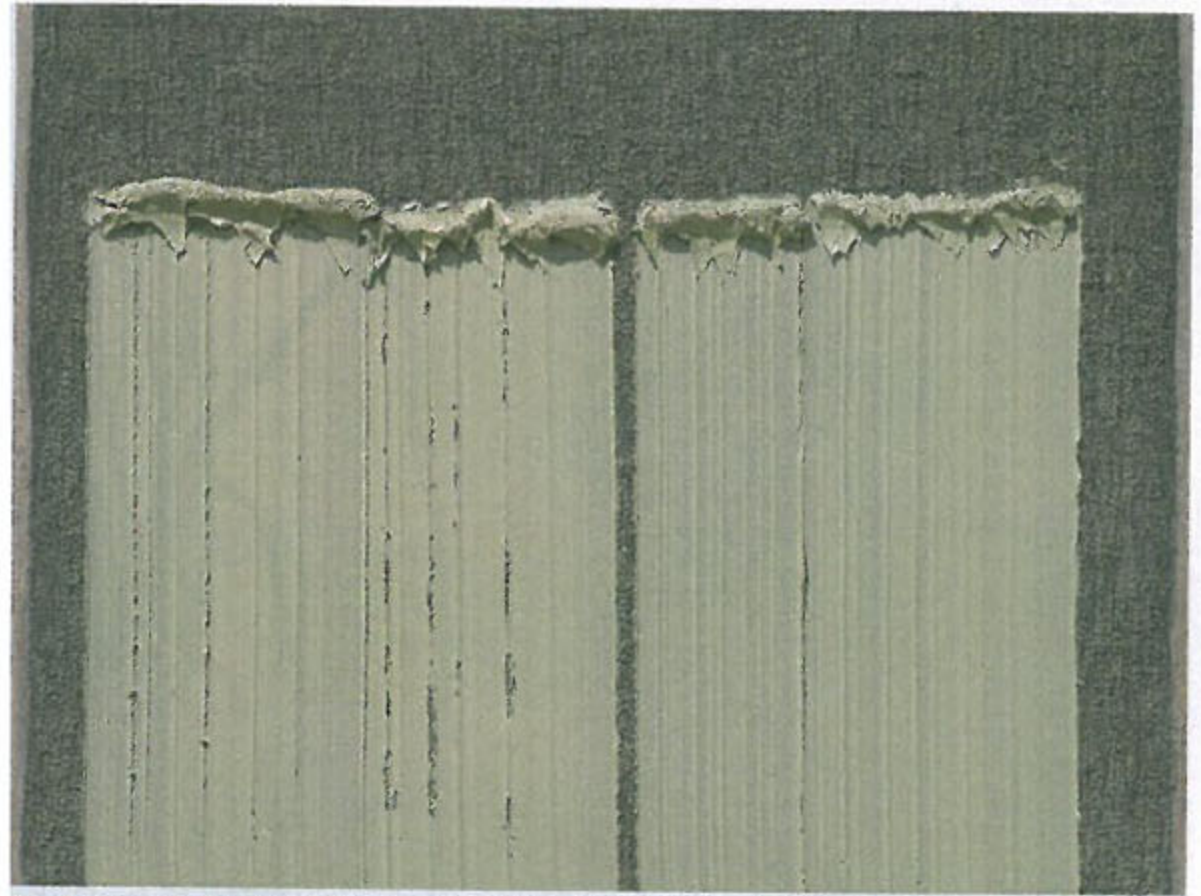
하종현은 “캔버스도 물감도 붓도 서양 화풍을 닮았다는 이야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찾은 재료가 마대였습니다. 엉뚱한 재료를 쓰면서 물감부터 붓까지 직접 만들어 사용한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하고 있는 흙 같은 재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설득하면서 세상에 보이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각자가 생각한대로 작품에 대한 감상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고 설명했다.

하종현이 추구하는 색의 경향 역시 자연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가 캔버스에 올리는 흙색이나 검정색은 단순히 검은 톤의 색이 아니라 어두워진 톤, 즉 기와가 오랫동안 비를 맞고 세월이 지나 퇴색된 것 같은 색이다. 한국의 도자기에서 느낄 수 있는 친숙한 색채로 어디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색상이 나온다.

단색화의 철학 속에서 색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물질일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작품은 물질과 물감이 행위와 섞여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종합적 결과물이다.

평생에 걸쳐 유화를 주로 다뤘으며, 물감을 물질로서 캔버스의 뒷면에서 밀어 넣는 그만의 고유한 기법은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회적 질곡과 급격한 산업화 아래 억눌려야 했던 내



Conjunction 14-5: 하종현, 'Conjunction 14-5'. 마대에 오일, 73 x 92cm, 2014. 이미지=국립현대미술관

면의 고통과 울분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종현 화백은 1959년 홍익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1990년~1994년 홍익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을 지냈고, 2001년~2006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2002년 부산시립미술관, 2003년 밀라노의 무디마 파운데이션 현대미술관,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대규모 회고전과 2014년 뉴욕의 블럼 앤 포 갤러리에서 전시를 펼쳤다.

주요 소장처로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홍콩 M+ 시각예술 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이 있다.